

2014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분과 심사평

본 심사평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1분과(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심사평

- 일시 : 2014.02.21(금), 10:00~18:00
- 장소 :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2
- 심의위원 : 김경주, 김진수, 노복순, 이용관, 이은경, 최해리, 한만주(가나다 순)

전체적으로 응모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하려는 단체가 많아진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깊은 고민 없이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많아 그만큼 우려도 컸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벌어질 장소성(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공연단과 무대의 규모나 성격이 부적절하거나, 늘 해왔던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 식으로 재구성한 예가 적지 않았으며, 완성도 또한 미흡해 보이는 사업들이 많았다. 특히 전통예술과 음악, 무용부문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또한 여전히 수도권보다 여타 지역의 프로젝트가 기획력이나 완성도면에서 떨어진다는 중론도 있었다. 지역의 예술가나 기획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들은 기획의 참신성과 장소와의 부합성에 근접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 했다. 그리고 지역적 형평성과 프로그램의 '순환성'에도 주목했다. 즉, 지원이 결정된 사업이 얼마나 지역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했다. 기획은 근사하나 실행이 다소 어려워 보이거나 완성도가 미흡한 프로젝트는 당연히 다음기회로 미루며 선정작을 좁혀나갔다. 문학의 경우 분량은 적었지만 책과 대중의 만남에 지속적인 능동성을 가져 온 사업에 힘을 실어 주었고, 응모수가 많은 다원과 전통예술, 무용, 연극의 경우 작품의 질, 장소적합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지역적 안배도 신경을 썼으나 작품의 질 문제로 지역 프로젝트가 덜 선정된 점은 아쉽다.

심사를 마치면서 하나 더 덧붙일 것이 있다. 지난 많은 사업들이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거나 사후 정리 및 정산을 제때에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예가 상당수였다. 약속한 사업의 성실한 수행과 마무리도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한다.

2014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분과 심의위원 일동

2014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분과 심사평

본 심사평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2분과(농산어촌, 군부대, 교정시설) 심사평

- 일시 : 2014.02.24(월), 10:00~18:00
- 장소 :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2
- 심의위원 : 김서령, 김승국, 김홍수, 박주택, 이민희, 이선철, 허순자(가나다 순)

2014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분과 심사에 있어서 음악, 전통예술, 무용, 다원예술, 예술일반 분야의 경우 응모 작품들이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자들이 비교적 예술적 경험이 적고 연행 환경이 열악하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야외 등 다목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니 만큼 관객의 집중도를 유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작품 구성으로 응모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이벤트성 기획으로 행사용 공연들을 급조하여 구성된 단체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예술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예술적인 성과와 프로그램 수행능력이 검증된 단체들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설 등을 포함한 교육적인 접근과 함께 관객 참여형 공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2011, 2012, 2013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평가점수를 고려하였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예산의 세부계획이 없고, 과다하게 계상된 사례비 및 임차비가 많이 책정된 사업 등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교정시설 순회사업의 경우 총 85건 중 10건을 선정하였으며 현장에서 참여자들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체험보다는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군부대 순회사업은 총 110건 중 18건을 선정하였으며 군부대 공연의 특성 상 주로 젊은 남성 관객 위주의 관객 대상을 고려하여 예술적 완성도 보다는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농산어촌 순회사업은 총 437건 중 72건을 선정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경우가 많아 해설과 체험이 병행된 공연 작품들이 많이 선정되었다.

2014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2분과 심의위원 일동

2014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산심의 심사평

본 심사평은 각 분야별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예산심의 심사평

- 일시 : 2014.02.26(수), 10:00~13:00
- 장소 :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1
- 심의위원 : 김서령, 김진수, 김홍수, 이은경, 한만주

2014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산 심의는 프로그램 규모, 출연자 수, 조명 및 음향 설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였다.

무대, 의상 등의 수선비는 일부 인정했으나 제작비, 기획 인건비, 진행비 등은 사업설명회 및 사업신청 매뉴얼을 통해 안내한대로 지원항목에서 제외하였고, 위원회에서 공통양식을 배포하기 때문에 리플렛,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에 대한 비용은 30만원을 적정 규모로 책정하였다.

다만, 선정된 예술단체와 예술위원회는 정책적으로 향후 지원금 교부 시 여행자보험료(공연자 보험)를 별도로 책정할 것을 건의드린다.

최종적으로, 총 202건의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회당 평균 437만원 수준이다.

2014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산심의위원 일동